

김도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라고 규정한 범주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장애인 내부의 차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차이보다도 크다. 예를 들어 농인, 나(비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는 3명의 집단 내에서 두 명의 장애인 간의 차이는 나와 다른 두 명의 장애인 간의 차이보다 더 크다. 몸 자체의 차이도, 구체적인 생활 장면 속에서 겪게 되는 차이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이 하나의 집단(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비장애인인 나의 몸이 표준이라는 전제 아래,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인간을 분류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주의에 따른 임의적인 범주인 것이다.

주요 논의 내용

- 무엇이 장애인가
- 손상과 무언가 할 수 없음의 관계
- 장애 문제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을 구분하는 하나의 범주로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불과 200~300년 전의 일이며, 장애가 무엇이고 누가 장애인인지를 우리 사회가 명확히 규정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늦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 손상·장애·핸디캡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가 장애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정의이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장애이며 누가 장애인인지를 명시한 기준이다.

ICIDH에 따르면 장애인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만한 이상(異常)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손상으로 인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ility)에 빠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놓이게 된다. 즉 장애인 ‘손상→장애→핸디캡’이라는 3단계 인과 도식을 통해 규정된다.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보이는 이 정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장애 관련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2005년 9월 20일 입법 발의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로 정의한다. ICIDH의 정의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하여’ 앞에 무엇이 위치해 있는가, 즉 장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이다.

장애인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은 주로 그들이 가진 손상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동일한 손상을 지녔는데도 특정한 행위를 두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다. 버스 타기를 예로 들어보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일반 시내버스에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상버스에는 탈 수 있다. 버스 타기라는 동일한 행위를,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버스를 탈 수 없음’의 원인이 과연 그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손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원인이란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손상이라는 요인은 그대로인데 버스를 탈 수 있기도 하고 탈 수 없기도 하다면,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바로 버스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감각적인 영역에 손상을 입은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흔히 맹인이 책을 읽을 수 없다고 여긴다. 그들은 묵자(墨字)로 된 책을 읽지 못 할 뿐, 점자(點字)로 된 책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즉 맹인의 눈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공되는 책의 형식에 따라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읽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이자 장애인언론 <비마이너>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메이데이, 2007), 『장애학의 도전』(오월의봄, 2019) 등을 썼고, 『철학, 장애를 논하다』(그린비, 2020), 『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후마니타스, 2023)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2004년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가 수여하는 제 2회 정태수상을, 2009년에 김진균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 4회 김진균상(사회운동 부문)을 받았다.

한국의 전체 장애 인구의 8% 정도인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용인원 중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제도적으로 완료했으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고, 그 나라들의 발달장애인은 자립한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과 그 나라들의 발달장애인이 특별히 다른 ‘인지적 영역에서의 손상’을 지니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지적 손상이 원인이라면 발달장애인은 어떤 나라에서든 자립할 수 없어야 하니 말이다.

일정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버스를 탈 수 없음’, ‘책을 읽을 수 없음’, ‘자립할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언가 할 수 없음’의 원인이 그들의 몸에 있는 손상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차별과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손상-[차별과 억압]→장애’인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흑인은 노예가 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이때 특정한 관계란 다름 아닌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이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상을 지닌 무능력한 사람이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장애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어 왔던 근거는 크게 보자면 다음의 2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동권의 문제, 혹은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얘기하며,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단지 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 둘째, 장애인의 열 명 중 아홉 명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the potentially disable-bodied) 내지는 일시적 비장애인(the temporarily able-bodied, TAB)이라는 근거 말이다.

이 근거에 오류는 없지만, 핵심을 짚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혹은 장애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 문제가, 즉 장애인을 둘러싼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에 강박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장애 문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또한 비장애인 역시 장애 문제의 한 일방이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바뀌어야 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장애 문제는 언제나 우리 모두의 문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시  
2024년 4월 22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